금주의 법구 - 〈법구경〉
스스로 자제해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3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3호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집행부는 '염화미소법', 지역佛心은 '직선제'

경북 · 충청 지역 대중공사서 '직선제' 선호 뚜렷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염화미소법'과 '직선제'다. 집행부는 '염화미소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직선제'를 선호해 그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첫 대중공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염화미소법을 추천했지만 이어진 지역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4월 9일 김천 직지사와 12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대구경북, 대전충청 지역 대중공사에서는 각각 100여명, 80여명의 대중이 참가했다. 이들 중 64.6%와 45.3%가 각각 직선제 선호 의사를 밝혔다. 추첨제인 염화미소법은 각각 5.1%, 34.4%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현행제도 '대표성 미흡' 꼽혀
경북 참가자 65% 직선제 요구
충청서는 직선제 문제 쟁점화

대중은 '대중공의 구현' 원한다

두 지역 대중공사에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의 첫 중앙대중공사에서 선보였던 전자투표가 도입됐다. 전자투표는 개인리모컨을 사용, 각 질문에 비공개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

전자투표에서 먼저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북 39.2%, 충청 46.9%의 참가자들이 '금권 혼탁선거로 인한 승가화합 저해'를 꼽았다. 하지만 나머지 과반이 넘는 대중들은 '계파의 정치야합' '사부대중 참여미흡' '참종권 제한' 등 현행제도가 대중공의를 미반영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인식은 '대중공의 구현'이란 목소리로 이어졌다. 대구경북과 대전충청 대중공사의 참석자 70.8%와 49.2%가 차기제도 과제로 '대중공의 구현'을 꼽았다. 총무원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참석자 64.6%와 45.3%가 대중공의 구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 받는 '직선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선호에 문제점 본격 논의

이 같은 선호 분위기에 대전충청 지역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가 가진 문제점을 토론 주제로 다뤄 주목을 끌었다. 그 결과 토론 전 51.3%의 직선제 선호도가 45.3%로 감소했으며, 염화미소법 선호도가 16.7%에서 34.4%로 크게 높아졌다. 대구경북 대중공사에서의 염화미소법 지지도 5.1%와 크게 차이나는 이유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민주주의나 대의성 강화가 불교가 가진 문제점의 해답이 아니다. 직선제 시행 전 종도가 정치화된다. 선거운동으로 종교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직선제 선호가 왜 높은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은 "직선제 선호가 왜 높은지 그 안에 해답이 있다.종단 구성원 의사가 반영된 대표자 선출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선제 장점 살리는 제도 필요

그렇다면 직선제는 종단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대중공사에서는 두 개의 흐름이 감지됐다. 염화미소법은 종단 고위직 스님들이 주로 찬성했고, 직선제는 비구니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찬성했다.

조계종의 직선제 투표권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총 10,883명이다. 이들 중 비구니 스님이 5,281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10년 이상 승랍자인 7,988명을 대상으로 하면 3,901명으로 역시 절반 가량이며, 20년 이상 승랍자 5,585명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면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보다 더 많다. 현행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비구니 스님들의 직선제 요구가 높은 것이 원인이다.

자승 스님은 3월 중앙 대중공사서 "종단 균열과 새 분규의 여러 위험성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직선제 도입의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비구니 스님은 "후보 난입을 막고 추천제와 직선제의 장점을 섞은 불교만의 제도라면 문제가 없다"며 "이미 비구니계에서 10대 ·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통해 직선제의 가능성을 시험했다. 장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종단의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대중공사추진위는 4월 한달 동안 호남, 강원, 영남, 제주 등을 돌며 공의를 모으고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두 번째 중앙 대중공사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佛名 받고 착한 청소년 되겠습니다 조계사 불교학교에 다니는 유아부터 중 · 고등학생까지의 불자들이 4월 10일 열린 '불교학교 어린이 · 청소년 연합 수계법회'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다. 수계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청소년 법회 지웅 스님, 불교학교 전담법사 성민 스님, 불교학교 학생들 1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참여 학생들이 연비 받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조계사

'청춘' 새 옷 입는 연등회…"꼭 올 거지?"

연등회, 5월 6~8일 종로 일원서 개최

청춘 마당 신설, 젊은이와 소통
북한 문헌 근거한 새 전통등도

올해 연등회가 '청춘'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팍팍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다.

2016년 연등회는 5월 6~8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장엄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은 4월 2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봉행된다. 봉축기간동안 광화문광장을 밝힐 탑은 지난 2012년 시청광장에서 선보인 국보 제35호 화엄사 4사자 삼층석탑을 원형으로 삼아 제작한 높이 20m의 등이다. 올해에는 탑등 사방에 비천상을 세워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기존 연등회와 다른 새로움은 5월 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전통문화마당'이 대표적이다. 신설한 청춘마당을 비롯해 △먹거리마당 △전통마당 △나눔마당 △국제마당 △NGO마당 등 총 6개 주제의 부스가 연등회 참가자들을 반긴다.

청춘마당은 점차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불교계의 고민을 담아 젊은이들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대표적으로는 '어라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지찬 스님 등의 불교 애니메이터그룹. 감성적인 불교카툰으로 청년들에게 불교를 부드럽게 전할 예정이다. 또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마음수행법과 힐링아트, 사찰음식 등의 부스도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연등행렬이 하루 만에 끝나 아쉽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저녁 7시부터 연희단 중심으로 인사동 및 종로 일대에서 등물결을 다시 선보인다.

한편 앞서 7일 진행되는 연등회 메인 행사도 청춘의 의미를 담았다. 먼저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서 열리는 '어울림마당'에는 40여개 단체 1000여 명의 연희단과 어린이 · 청소년 · 청년율동단이 참여한다. 아울러 청년율동곡으로 1986년 성철 스님의 봉축법어를 랩으로 작곡한 '당신의 생일입니다'가 울려 퍼진다.

연등회의 '꽃'인 연등행렬은 오후 7시부터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올해 선두행렬에는 한글로 표현한 오방번과 인로왕번, 북한문헌을 토대로 복원한 북한전통등이 대거 등장한다.

연등행렬이 끝난 뒤 오후 9시 30분 종각사거리에서는 회향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5월 6일부터 조계사 옆 우정공원, 봉은사, 청계천에서 전통등 전시회가 열리며, 글로벌 서포터즈는 5월 4일 깜짝 이벤트로 플래시몹과 탑돌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대안 스님은 "올해 연등회는 '불교가 어떻게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아 마련했다"며 "불교의 참뜻을 알리고, 어렵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문화적 코드에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전국 봉축일정 5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인문학 스타강사 강남 불교에 총출동

월호 · 마가 스님 등 17명
참불선원, 총 24강 마련
명상 · 불교 · 심리학 등 다채
5월 2일부터 3개월간

불교계의 내로라하는 인문학 스타들이 강남에 총출동한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이 5월 2일부터 3개월간 개설하는 '불교인문학 강좌'가 그것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최근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마음안정 스트레스 완화의 명상 분야를 비롯해 동서양 철학, 심리학과 불교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주제로 다룬다. 상반기(5월)와 하반기(9월) 각 3개월 과정으로 상 · 하반기에 걸쳐 총 24강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진들을 살펴보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유명인들이 출강한다. 행복 명상 멘토 월호 스님(행불선원장), 힐링멘토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주경 스님, 前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前 해인사 강주 원철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유식치유 상담멘토 서광 스님(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비로선원 선원장 광명 스님 등 9명이 참여한다.

강사로 참여하는 재가자들의 이력 또한 화려하다. KBS와 SBS 등 공중파 출연을 통해 인문학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는 철학자 강신주씨를 비롯해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중관학의 대가인 김성철 동국대 교수, 이규미 한국심리학회장, 선상진 불교방송 사장, 〈훈민정음의 길〉 저자인 사학자 박해진 씨 등 8명이다.

이번 강좌를 기획한 참불선원 선원장 각산 스님은 "새롭게 기획한 이번 강좌에서는 일반적 불교학을 탈피하고 문화적 삶의 지적 깊이를 더해줄 심오한 불교인문학 저변화를 위해 인문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강사진을 초청해 불교의 지성문화 생활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의 대부분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지상 중계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